

태평양전쟁피해 日에 보상요구

東京서 첫 대규모 국제포럼

1991. 8. 04

713

韓中 동남아 등 20여명 참가

반응 없을 땐 공동 대처기로

세계여론에 호소... 일상품 불매운동도 검토

【東京=李洛淵특파원】아시아 태평양지역의 戰前 및 戰中 피해자들에 대한 日本 정부의 戰後보상요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 포럼이 3일 東京 시내 치요타(千代田)공회당에서 열렸다.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아시아 태평양지역 戰후보상국제포럼」에는 韓國의 피해자단체대표 4명과 中國 臺灣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蘇聯사할린의 피해자단체대표들 모두 13명이 발표에 나섰고 10명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한국 태평양전쟁생존자유족회 간부 65명도 모두 1전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일련의 시민단체들이 「구상된 실행위원회(委員長高木健一)는 호사가 주최했는데 일본의 전후보상을 놓고 피해자 단체들의 모여 이처럼 본격적인 국제포럼을 갖기 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3일의 첫날 포럼에서 한국 태평양전쟁생존자유

족회 상임이사 梁順任씨는 △한국인 희생자 전원에 대한 日本의 배상△일본은행에 한 집적적 공식사회소한민 족 강제징용자 전원의 명 다 및生死여부 공개 △한국 인 희생자 유해의 발굴 및 송환△한국인 희생자 전원 을 앞대 여론을 환기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 히고 「그랜드 안테나」면 우 선 東南亞 피해 당사국 회 생자들과 연대해서 세계에 호소, 반성할 줄 모른다 非人道的 국가(일본)의 상 품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辛泳洙(한국외교부 피해 자협의회장) 梁基成(문화파 해 미쓰비시 社長) 李斗奎 勲(한국中蘇이산가족회 회장) 등도 자신의 피해체 험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戰後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2일 訪日 이번포 럽에 참석한 한국 태평양전 쟁희생자 유족회 金鍾大 회 장은 8일까지 일본에 머 물면서 후생성 법무성 등을 방문, 對日요구 5개항의 이행과 더불어 요구하고 9월에는 50명의 원고단 이 이를 위한 소송을 東京 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징용피해 아시아 7국 日외무성에 보상요구

【東京=聯】2차대전중 日帝에 강제징용,挺身隊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 는 「아시아 7개국 동안도포에서 개최된」8 일 日외무성을 방문한 전 쟁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전 쟁이 끝난지 46년이 되었 음에도 일본정부가 피해당 사자들에게 대한 보상을 외 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각 국의 실태조사에 착수해 성의를 가지고 보상에 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라베(浦部 和好) 日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은 「전쟁이 두 번 다 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 라지만, 보상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대답 했다.

상을 유망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3일과 4일이 동안도포에서 개최된 「8 일 日외무성을 방문한 전 쟁 국제포럼」에 참석했던 991